연기자 서현진·정소민·한소희(왼쪽부터)가 각각 tvN '너는 나의 봄', JTBC '월간 집', '알고 있지만'을 내놓고 시청률 경쟁을 펼친다. 사진제공 | tvN·JTBC

로맨스 구원투수, 인생 캐릭터 준비 끝!

서현진, 내달 '너는 나의 봄' 주인공
정소민 '월간 집'서 김지석과 호흡
한소희 '알고 있지만'서 대학생 변신
최근 로맨스 부진 속 새 활력 기대

'로맨스 구원투수'들이 나선다.

오랫동안 안방극장의 '흥행불패' 콘텐츠로 자리 잡았던 로맨스 장르 드라마가 최근 시청률 부진 등 침체한 가운데 서현진, 정소민, 한소희 등 연기자들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 현재 tvN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 '간 떨어지는 동거', KBS 2TV '멀리서 보면 푸른 봄' 등이 2~3%대 시청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매력으로 시청률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새 '인생 캐릭터' 경신 예고

서현진은 7월5일부터 방송하는 tvN 월화드라마 '너는 나의 봄'의 주연으로 나선다. 극중 호텔 컨시어지 매니저 역을 맡아 이웃으로 만난 정신과 전문의 김동욱과 로맨스를 그려간다. 입주한 건물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다는 설정으로 반전도 꾀한다.

드라마는 특히 '서현진표 로맨스'라는 점에서 일찌감치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현진은 SBS '사랑의 온도', JTBC '뷰티 인사이드', tvN '또 오해영' 등 로맨스 드라마를 잇따라 성공시켜 '로코 퀸'이란 수식어를 얻었다. 이번에도 그동안 보여준 사랑스러운 매력을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전작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등 로맨스 장르에서 강점을 발휘해온 정소민도 16일 JTBC 수목드라마 '월간 집'을 내놨다. 리빙 잡지사의 에디터 역이다. 2013년 KBS 2TV 단막극 '나에게로 와서 별이 되었다' 이후 8년 만에 만난 김지석과 티격태격 로맨스를 그린다. 월세살이, 주택청약 등 최근 젊은 세대의 고민거리로 꼽히는 부동산 소재도 녹여낸다.

한소희는 19일부터 방송하는 JTBC 토요드라마 '알고 있지만'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탄탄한 독자층을 보유한 동명 웹툰을 드라마로 만들어 2030세대 시청자의 기대를 받고 있다. 앞서 MBC '돈꽃', JTBC '부부의 세계' 등으로 강렬한 멜로 연기를 펼쳤던 한소희는 이번에는 대학생들의 짜릿한 사랑을 그린다. 송강이 새 파트너다. 일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편성할 만큼 파격적인 장면도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맨스 부진 털어낼 열쇠는 "신선함"

새로운 로맨스 드라마들은 현실적인 공감 요소를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최근 로맨스 장르가 부진을 겪는 이유로 "식상한 이야기 작법"이 꼽혀왔기 때문이다.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는 16일 "각종 장르물이 사회적인 이슈를 적극적으로 담아내며 현실적인 공감을 받는 상황에서 로맨스 드라마는 비교적 현실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기자들도 다양한 소재를 엮어 공감을 높이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정소민은 이날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일상에서 겪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현실적으로 그려내 더욱 재미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배우 차승원이 주연 영화 '싱크홀'을 여름에 공개한 후 11월 OTT 플랫폼 쿠팡플레이를 통해 드라마 '어느 날'도 선보인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차승원, 재난영화 '싱크홀'로 여름극장가 달군다

11년 만에 마련한 집이 1분만에 폭삭
11월엔 OTT '어느 날'서 변호사 역할

배우 차승원이 쉴 틈 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무대를 통해 각기 강렬한 매력을 드러내며 관객과 시청자를 만나게 돼 여느 때보다 활발한 기세를 과시하고 있다.

4월 넷플릭스를 통해 영화 '낙원의 밤'을 선보인 차승원은 여름시즌 극장가를 정면 겨냥한다. 주연작 '싱크홀'(제작 더타워픽쳐스)이 개봉하면서 극장가 최대 성수기 관객몰이에 나선다.

'싱크홀'은 11년 만에 마련한 집이 단 1분 만에 무너져 싱크홀로 빠져들어 가면서 그 속에 갇힌 이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재난영화이다. 영화는 여기에 코믹한 분위기를 더하며 개발이라는 미명에 갇힌 현실을 풍자한다. 차승원은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고군분투하는 주민 역할을 맡아 연기를 펼쳤다. 김성균, 이광수, 김혜준, 김홍파, 고창석 등 강한 개성을 지닌 연기자들과 호흡을 맞췄다.

차승원은 앞서 '독전' '낙원의 밤' 등 누아르 영화에서 독특한 악역 캐릭터를 실감나게 펼쳐 보이면서 호평을 받았다. 그런 그가 2019년 '힘을 내요, 미스터 리' 이후 다시 현실감 넘치는 코믹 캐릭터를 선보이게 돼 기대감을 모은다. 다수의 코미디 영화를 통해 배우로서 위상을 구축한 뒤 다채로운 이미지를 뿜어내는 다양한 장르로 영역을 확장해온 만큼 '싱크홀'을 통해 드러낼 또 다른 모습에 대한 관객의 기대를 키운다.

차승원은 이어 11월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쿠팡플레이를 통해 드라마 시리즈 '어느날'을 공개한다. 살인 용의자 김수현의 변호사 역을 연기하며 사법제도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이야기를 이끈다. 2018년 tvN '화유기' 이후 3년 8개월 만에 새로운 드라마를 선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어느날'을 한창 촬영 중인 그는 '싱크홀'의 개봉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영화 홍보프로모션 활동에서 나서야 한다. 여느 여름시즌보다 더욱 바쁜 행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일정인 셈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이색 콜라보 그룹' 눈에 띄네

박재범·넉살·로꼬·던밀스 '쌔끈보이즈' 결성
'매드몬스터' '라미란이' '다비쳐' 등도 화제

'이색 컬래버레이션 그룹'이 뜬다. 현재 방송 중인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데뷔 초읽기에 들어간 MSG워너비를 비롯해 쌔끈보이즈, 매드몬스터, 라미란이, 다비쳐 등 색다른 협업 콘셉트를 내건 프로젝트 그룹이 잇따라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쌔끈보이즈는 멤버부터 화려하다. 힙합음악계를 대표하는 4명의 가수 박재범, 넉살, 로꼬, 던밀스가 힙합 보이그룹을 결성해 최근 신곡 '궁금해'(Prod. GRAY)를 발표하고 각종 방송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다. 아이돌 그룹처럼 '교포 메인보컬' 던밀스, '댄싱머신' 넉살, '예능천재' 박재범, '괴물 리더' 로꼬 등 활동 영역을 정하고 자신들만의 인사법도 만들었다.

이들은 힙합음악 전문 유튜브 채널인 딩고 프리스타일의 오리지널을 통해 탄생했다. 래퍼 던밀스와 넉살이 출연하는 콘텐츠 '궁금한 나라의 넉밀스'에서 박재범이 이끄는 레이블 AOMG를 찾아가 "일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던밀스와 넉살이 박재범에게 음원 발매를 제안하고 로꼬를 추가 멤버로 영입했다.

매드몬스터

라미란이

이들의 라이벌은 매드몬스터다. 개그맨 곽범과 이창호로 구성된 매드몬스터는 유튜브 채널 '빵송국'이 선보인 아이돌 그룹으로, 카메라 필터 애플리케이션으로 얼굴을 보정해 멤버 탄과 제이호의 '부캐'로 각종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여느 아이돌 그룹처럼 '세계관'도 내세운다. 신선한 매력에 최근 발표한 '내 루돌프'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와 안무 영상 등은 유튜브 조회수 660만 건을 넘어섰다.

배우 라미란과 래퍼 미란이의 조합도 눈길을 끈다. 두 '미란이'가 만났다는 점에서부터 호기심을 자극한 이들은 최근 데뷔곡 '라미란이'로 팬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있다. 히트 작곡가 그루비룸이 프로듀싱했고, 가수 효린과 보이콜드, 마미손 등이 작곡에 참여한 곡은 두 미란이가 세상에 건네는 응원가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개그맨 김원효와 이상훈은 남성듀오 다비쳐를 결성하고 출사표를 던졌다. 최근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통해 데뷔 무대를 갖고 '핫 쿨 섹시'를 처음 공개했다. 곡은 여름에 어울리는 댄스 장르로, 형돈이와 대준이가 프로듀싱을 맡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오종혁, 어느새 '예능 사나이'

'강철부대' 이어 '도시어부3' 안방극장 활약
7월까지 뮤지컬도…오디션 심사위원 러브콜

오종혁

그룹 클릭비 출신 오종혁이 다재다능한 매력으로 예능 무대를 누빈다. 아이돌 그룹 멤버, 연기자, 뮤지컬뿐 아니라 해병대수색대 출신이라는 독특한 경력을 고루 갖춰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가 '예능 스타'로 인기를 얻게 된 계기는 현재 방송 중인 채널A 예능프로그램 '강철부대'이다. 6개의 특수부대 예비역들이 부대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는 프로그램에서 해병대수색대의 팀장으로 출연했다. 올해 38세로 참가자 중 가장 나이가 많지만 끝까지 미션을 수행하는 열정이 시청자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비록 1라운드에서 탈락했지만 초반 프로그램의 화제몰이에 불을 붙인 주인공으로 꼽히고 있다.

'강철부대'로 얻은 인기를 발판삼아 지난달 20일에 이어 17일 채널A 예능프로그램 '도시어부3'에 다시 한번 출연한다. '강철부대' 애시청자인 이덕화, 이경규가 제작진에 오종혁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출연이 성사됐다.

연출자인 장시원 책임프로듀서는 "낚시 초보임에도 움직이지 않고 물고기를 낚는 등 특유의 근성을 보여 고정 멤버들이 크게 감탄했다"고 밝혔다. 덕분에 시즌3에서만 벌써 4회째 출연해 '제2의 멤버'로 통하고 있다.

또 아이돌 그룹과 뮤지컬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으로부터 특별 심사위원 등으로 출연 섭외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뮤지컬 배우로서도 관객을 만나고 있다. 7월4일까지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1976 할란카운티'의 주연을 맡았다. 최근 구안와사(입과 눈 주변 근육이 마비되는 병)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가운데 통원치료를 이어가며 무대에 오르고 있다. 유지혜 기자

연예뉴스 HOT 3

BTS '일본 베스트 앨범' 하루만에 110만장 판매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의 일본 베스트 앨범이 발매 당일에만 출하량 110만장을 넘겼다. 16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일본 베스트 앨범 'BTS, 더 베스트'가 이날 110만장을 돌파했다. 이번 앨범은 2017년부터 4년 반 동안 일본에서 선보인 싱글과 앨범 수록곡 등 총 23곡이 담겼다. 보너스 트랙으로 지난해 세계를 휩쓴 '다이너마이트'를 실었다. 멤버 정국이 일본 밴드 백넘버와 협업해 만든 '필름 아웃'은 발매 직후 오리콘 일간 디지털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했고, 일주일간 1000만회 이상 스트리밍되며 주간 스트리밍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봉준호, 24일부터 단편영화 특별전 개최

봉준호

봉준호 감독이 제20회 미쟝센 단편영화제에서 단편영화 특별전을 연다. 24일부터 30일까지 시네마테크전용관 서울아트시네마와 서울극장에서 동시 개최되는 미쟝센 단편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단편을 모아 상영한다. 상영작들은 봉준호 감독이 초기에 연출한 단편영화 3편과 2004년 전주국제영화제 디지털삼인삼색으로 제작된 단편영화 '백색인', '프레임속의 기억들', '지리멸렬', '인플루엔자' 등 총 4편으로 구성됐다.

배우 백성현, SNS 통해 득녀 사실 알려

백성현

연기자 백성현이 딸을 얻은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 16일 백성현은 개인 SNS를 통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딸을 얻게 됐다. 개인적으로 바쁜 날을 보내다 이제야 알리게 됐다"는 글과 유모차를 끄는 사진을 올렸다. 소속사 싸이더스HQ도 "백성현이 지난해 10월31일 득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4월25일 4년간 교제해온 3살 연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했다. 백성현은 1994년 영화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로 데뷔해 드라마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이리스2' '닥터스' 등에 출연했다. 18일 tvN 새 드라마 '보이스4'에도 출연한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